

광주과고, '원격수업을 등교수업처럼'

자체 원격수업 플랫폼 활용해 온라인 개학 대비 수업 중 학생들 질문에 곧바로 피드백 제공해

광주과학교등학교가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 후 교과수업과 연구활동(R&E) 등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정을 등교수업 시간표와 동일하게 원격수업 플랫폼인 학사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 내에 원격교육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해 온라인 개학 전부터 학사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증설 상황을 점검하는 등 원격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했다.

교과 교사들은 학사관리시스템에 원격수업 계획서를 1주 단위로 안내하고 크게 실시간 양방향 수업, 온라인 콘텐츠 활용 및 과제 수행 중심 유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영상 시청 시각 및 시간, 과제 제출 여부, 묻고 답하기 등 학생들의 모든 수업 활동 내용이 학사관리시스템에 기록된다. 수업 중에는 학생들의 질문에 곧바로 피드

백을 제공하는 등 모든 수업유형이 실시간 수업처럼 진행돼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학사관리시스템은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 교사들이 수업에 적절히 활용해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교사들은 제작된 온라인 콘텐츠를 학사관리시스템에 올리는 대신 유튜브 등을 이용해 URL주소만 링크로 운영하고 있다. 접속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교사가 노력하고 있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담임교사는 매일 아침 8시30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급 학생들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조치를 진행한다. 또 통신 장애 문제 등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수업내용 확인 및 과제제시 등 보충학습 계획을 세워 수업 결손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학년부장 교사는 학년 전체 학생들의 출결을 제



시간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원격수업 시 저작권 문제·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유의사항 등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 및 정보 교과목들은 이론과 실험이 1:1 비중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원격수업에서는 안전교육, 실험 이론 및 실제 등 실험을 준비하는 과정과 온라인 시뮬레이션 실험 위주로 진행된다. 이후 등교수업을 하게 되면 실험 활동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원격수업이 연장되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

성이 없는 실험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실험 재료를 택배로 발송하고, 실험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촬영해 '학사관리시스템'에 제출하게 할 예정이다.

광주과학교 김득룡 교장은 "원격수업으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가 평소처럼 긴밀하게 연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보고 선생님이 교육내용, 전달매체·방식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그 쪽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광주시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당부

긴급돌봄 이용 학생에 신신당부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 심각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학생 귀가 후 가정생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생활지도를 일선 학교에 당부했다.

최근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원격수업 전격 실시로 긴급돌봄 이용 학생이 급증했다. 이중 일부가 조기 귀가 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다. 긴급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다른 학생들의 안전에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학교 관계자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커져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일주일 만에 30명 넘게 확진자가 급증한 경북 예천 지역에서 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던 학생이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돌봄에 참여했던 교직원·학생·학부모 전체가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았다. 시교

육청은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급력이 큰 만큼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스마트기기 사용법, 원격수업 플랫폼 이용 방법 등으로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임교사가 사용법 등을 지도한 후 가정에서 학생들의 원격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교육청은 긴급돌봄 참여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방역에도 힘을 줄 것을 요청했다.

시교육청 김수강 초등교육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들고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며 "학부모님들은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고, 학생들 역시 현 비상상황을 인식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Wee센터, 신학기 상담주간 실시



여수교육청 Wee센터는 온라인 개학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Wee와 함께하는 신학기 상담주간'을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다. 여수 Wee센터에서는 온라인 개학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온라인 상담 플랫폼을 안내하며, 비대면상담 활성화와 학교에서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며 진행하고 있다.

지난 프로젝트인 위(Wee)생활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학(생), 교(사) 함께 위(Wee)로 반자!'는 부제목을 내세워 Wee클래스 미구축학교를 방문하여 심리적 위축, 무력감 등 감염병 스트레스를 줄

이기 위한 방안을 학교에 제시했다. 온라인 상담을 통해 '위로반 GO', Wee클래스 온라인 상담 플랫폼 안내하며 정보 '나누GO', 위로키트로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날리GO' 활동을 진행한다.

신학기 상담주간 동안 관내 Wee클래스 미구축학교, 신규 Wee클래스, 지역사회유관기관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상담 플랫폼 안내(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온라인 상담 채널 개설 매뉴얼 안내, 코로나 블루 극복 포스터와 위(Wee)로 키트 전달을 하였다. 또한 각 학교에 심리·정서적 고위험군 학생, 열악한 가정환경에 처해있는 학생,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용대 교육장은 "여수Wee센터가 온라인 개학에 발맞춘 신학기 상담주간 동안 학생, 교사, 학부모가 안정감을 형성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교육청, 지역아동센터 원격수업 격려



무안교육청이 최근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보호단체를 차례로 방문하여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무안 관내에는 꿈이 있는 마을의 16개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보호단체(소년원)가 있다. 이곳의 학생들은 가정 또는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서 모처럼 생활하며 원격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무안교육청은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참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미리 각 학교 및 교육청의 태블릿PC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보호단체에서는 학생 개인별로 태블릿PC 등을 지급하고 각자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사용하여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원격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센터 선생님 또한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시로 살펴보고 지원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정재철 교육장이 "선생님과 같이하는 원격수업이 재미있느냐"고 묻자 한 학생은 "과제가 있지만 그래도 재미있다"고 웃으며 대답했다.

아동보호단체에서는 "학교에서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태블릿PC 등을 학생들 수만큼 대여해 주어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원격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정재철 교육장은 "학생들의 원격수업 격려 뿐만 아니라 원격수업을 지원하느라 애쓰고 계신 현장의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살레시오 가족, '온라인 합창단' 프로젝트

살레시오여자중·고등학교가 5월 성모성월을 맞아 '100인이 함께하는 온라인 합창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5월의 성모성월을 기념하기 위해 합창 파트별로 성모송을 부르는 동영상은 모아 100명이 노래하는 온라인 합창곡을 제작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정처럼 운영되지는 못하지만 50년을 이어온 합창축제의 전통을 이어감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담은 노래가 모여 큰 희망으로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취지로 기획했다.

살레시오 교육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신청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22일까지이다. 살레시오여중·고 음악교사와 학생이 각각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파트를 맡아 참가자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시범 가이드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성모송 가이드 영상을 참고하고, 각자 노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영상은 5월 말



막 주 성모성월 행사 때 상영될 예정이다.

살레시오여고는 문화예술특성화학교로서 매년 5월이면 교내합창축제로 온 교정이 노랫소리로 가득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 기획한 살레시오여고 고동현 음악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함께 모일 수는 없으나 온라인 합창단을 통해 합창축제의 전통을 이어가고 한 사람의 노래가 100인이 함께하는 온라인 합창으로 재탄생하는 새로운 경험에 도전한다"며 "서로 하나 됨을 느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